

민주 '청년 비례대표제' 시작도 하기 전에 법정으로

“35세 제한에 36세는 청년 아니냐”

일부 70년대생 보좌관들

선정 중지 가져분 신청

신청 저조 흥행에도 비상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제'가 흥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강 시장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젊은 층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도한 제도다. 민주당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시 청년층을 25~30세, 31~35세 등 두 연령대로 나눠 '슈퍼스타 K' 방식의 경연을 거친 뒤 연령대별로 남녀 1명씩 4명을 당선 가능권의

비례대표 후보에 배정되고 최고점자를 지명할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절차 수정을 촉구하는 70년대생 국민·당원모임' 서보전 대표는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져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대표는 민주당 신하옥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25세 이상이라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2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그러나 35세를 기준으로 30대를 돌로 쪼개는 것은 어디서든 근거를 찾

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 36세라고 밝힌 그는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라면서 "35~39세의 국민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갖지 못해 헌법상 대의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져분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 신청서를 내도 수용됐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민주당 보좌관 사이에서는 보좌관 출신을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숙원처럼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외면해 왔는데 청년 비례대표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임에도 수용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또 청년 비례대표제는 신청이 저조

해 흥행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예초 13일까지 청년 비례대표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11일 현재 15명만 신청하는데 그치지 신청기한을 28일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1차 112명, 패자부활전 20명 등 132명을 선정해 집단토론회와 경연발표, 배심위원단 평가, 모바일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만이 이뤄진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신청 기준 연령을 40세로 상향조정하면 이 연령층이 몰리기 때문에 청년 비례대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보좌관 비례대표 문제는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설맛이 일곱 빛깔 가래떡

설날을 앞두고 12일 함평읍내 시장의 떡방앗간에서 복분자와 썩, 백년초, 감, 흑미, 단호박, 자색고구마 등을 첨가해 일곱가지 빛깔을 낸 무지개 가래떡을 받고 있다. 경기불황과 일찍 찾아온 명절 탓에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지만 뽀얀 김을 내뿜는 가래떡 내용 속에 방앗간에서 일하는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함평=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승덕 통화’ 김효재 수석 조사 검토

檢 '돈봉투' 고명진·안병용 이틀째 고강도 수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공안1부장)은 12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와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연이월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고씨와 안씨 둘 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으며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2008년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건넨 당사자인 것으로 보고 계속 추궁했지만, 그는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건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고씨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고씨의 상관으로 있었던 한나라당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씨와 박 의장 전 보좌관 출신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고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박 후보 캠프에 돈 봉투를 돌려준 뒤 고 의원에 전화로 걸고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본 인물이 김효재 정무수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김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원외 인사인 안 위원장을

검찰은 안씨가 금품 선거를 목적으로 돈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놓고 박 의장에 오는 18일 귀국하면 설 연휴 이전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냥 쳐다도 못 봅니까?!

강운태 시장 비서 최도식씨 민주 청년 비례대표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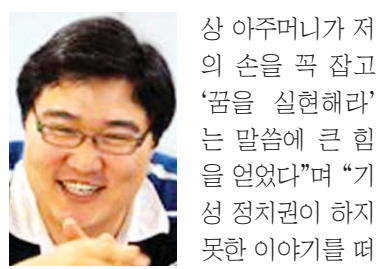
강운태 광주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있는 비서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기로 해 지역정가에서 화제다.

강 시장 비서인 최도식(29·사천)씨는 오는 4월 총선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청년 비례대표에 나서기로 한 것. 최 비서는 12일 "정치권과 사회에 대한 청년의 분노가 99℃까지 끓어 올라왔다"며 "청년 대표로서 입법부에 들어가 부족한 1℃를 채워 문제의 해법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려고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육아 부담 ▲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지속되는 대학 등록금 ▲청년 실업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 등 청년과 연관된 5가지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전북 순창이 고향인 최 비서는 유년시절 노점상 부모와 형제 등 일곱 식구가 단칸방에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사회적 복지·교육 시스템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광주 총장로서 홍보 동영상 촬영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연설을 들던 노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강운태 국회의원 비서(9급)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그는 "강 시장께서도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다"며 "매사에 국민과 시민 입장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강 시장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는 지난해 8월27일 노무현 재단 주최로 봉하마을에서 열린 제1회 'SARAM(사랑) 2011 청년 콘퍼런스'에서 '다불어 사는 세상은 온누리가'라는 내용으로 본선 발표에 나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대와 30대 남녀 1명씩 총 4명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뽑기로 하고, 2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공직자 6명 사퇴

시한 마감... 3명 총선·3명 보선 출마

광주 통장 등 26명도

오는 4월 총선과 단체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사퇴시한인 12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공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사퇴한 공직자는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박만호 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이상남 전 광주지방보달청장, 진상열 전 무안군 지역개발과장, 유현주 전 전남도의원 등이 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이개호 전 부지사는 담양·곡성·구례 출마를 위해 뒷발을 갈고 있었다.

역시 행정 출신으로 스킨십이 뛰어나고 복잡한 현안을 잘 푸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병훈 전 단장은 광주 정치의 1번지인 동구 출마를 선언했다.

유현주 전 도의원은 통합진보

당으로 광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박만호 전 전남도 행정지원국장과 진상열 전 지역개발과장은 무안군수 보궐선거를 노리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상남 전 광주지방보달청장은 강진군수 보궐선거를 위해 뛰고 있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조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되려고 해도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다. 광주에서는 이날까지 26명의 통장과 자치위원장 등이 사퇴했다.

이중 통장이 1명이고, 자치위원이 25명이다. 구별로는 북구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구 8명, 광산 6명, 서구 2명, 남구 1명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공회 상일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교사거리)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옆) 02-733-0220 송파점(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사리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서울역점(서울역) 02-778-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9-8800 서면5점 819-0016 남포동점(부평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터리)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1-0060 진주점(중앙로터리) 055-745-3870 대구 동문점(동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빌딩 옆) 053-425-7576 경북 포항점(북구) 054-244-5110 인동점(구.인동농고교가) 054-659-2288 광주 광우점(인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운정) 062-959-4477 남원 순천점(중앙시장)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북로터리) 063-252-5722 군산점(구.서생빌딩 옆) 063-446-7198 익산점(북부) 063-838-6200 남원점(신성가) 063-832-3626 대전 대전점(도심)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6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루터가)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동) 043-254-5110 대전점(043-222-1177-8 충청점(신원로터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해운로터리)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양로터리) 064-735-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협회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귀도청역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정역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